말씀하신 대로 되살이나셨다

부활절 복음 묵상

이낙희 신부 편집

부활절 복음 묵상

말씀하신 대로 되살아나셨다

이낙희 신부

목차

1.빈 무덤 4

2.부활 10

3.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심 16

4.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21

5.경비병들이 매수됨 23

6.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26

7.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심 1 35

8.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41

9.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베드로 47

10.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심 2 52

11.승천 62

1.빈 무덤

- (마태 28, 1-10)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무덤은 여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닫혀 있지만, 여자들은 경비병들이 무덤을 열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열어주리라고 믿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 여자들은 군인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봉사를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사랑은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논리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에 사람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자들과 사도들이 상상해 낸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부활로 일어난 지진과 특이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

었습니다. 그래서, 수석 사제들은 경비병들에게 침묵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입막음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우리를 위한 하느님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처한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운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이가 행복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 계획의 일부이니, 제 삶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돌아가실 때는 함께 계시며 지켜보셨지만,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처럼 안식일이 지나자 무덤으로 찾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래된 전승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며 함께하신 어머니이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모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이해하는 데는 어쩌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시

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은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아들의 손과 발에 난 상처는 이제 빛과 사랑의 근원이 되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볼썽사나운 얼굴은 영광스럽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여인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층 방에 모인 사도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루카 24,37).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삼종기도를 바치면서 아들의 부활을 성모님께서 축하드립니다.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이 부활절에 성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목표를 세웁시다!

2.부활

- (요한 20, 2-8)

주간 첫날…마리아 막달레나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친교와 신뢰의 표시를 보이셨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자신을 일컬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요한 13, 23)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애정을 지니셨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따랐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이 거의 첫 번째로 불린 제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혹시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관대했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요한 사도가 강한 성품의 소유자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한 사마리아 마을을 두고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려 불살라 버리자'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루카 9, 51-55 참조). 이미 이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두 형제를 두고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셨겠지요.

하느님께서 젊은이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그 젊은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

다. 하느님께서는 소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소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은혜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요한은 베드로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였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다다랐지만, 베드로가 올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사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사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습니다. 더러는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본받고, 당신의 구원사업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사도처럼 매 순간 기쁨에 넘치고 흔들리지 않는 충실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빈 무덤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느님을 믿고 섬겼지만, 이 순간 새롭게 회심하여 다시금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한 주님의 신뢰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십자가 위에서 지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당신 어머니를 그에게 맡기셨을 때입니다. 요한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순간이었다면, 골고타에서 요한은 더욱 조심스럽고 가슴 아픈 소명, 곧 하느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내려주신 엄청난 은사를 거룩한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요한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시에 성모님이 지상에서 삶을 다하시는

날까지 성모님을 돌보아드린 일에 대해 요한 사도에게 고마워합시다.

3.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심

• (요한 20, 11-18)

그때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두서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신을 옮기는 것은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였고, 유다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

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예수님이 "여인아" 하고 부르셨을 때 그녀는 그분을 알아뵙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즉시 알아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처럼 이름을 부르시며 독특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무언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또 빵을 떼어 나누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아뵐 것입니다(루카 24, 30-32 참조).

마리아는 아람어로 “라뿌니!”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매우 친숙한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큰 확신으로 주님을 대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모셔 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알아뵐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 당신의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 피로

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일 우리와 삶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4.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 (마태 28, 8-10)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기쁨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여자들이 소식을 전하기를 더 바라십니다. 직접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지만, 그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여자들은 당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르면서 지켜본 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께서 안배하신 고유한 계획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사명에 충실할수록 우리는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5.경비병들이 매수됨

- (마태 28, 11-15)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경비병들의 사명은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가서는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경비병들은 오히려 그분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 곧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이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오히려 출처가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활에 관한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경비병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사도 6, 7)

부활에 관한 거짓말은 퍼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진실이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 자체가 진리이며, 선이며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나 쉴 때, 취미 생활을 할 때도 항상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외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죄는 항상 거짓을 말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행복을 약속합니다. 죄는 겉모습, 진리를 가리는 허상일 따름입니다.

“성모님, 기뻐하소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6.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 (루카 24, 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제자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어 그들을 하나하나 찾으십니다. 이 제자들은 슬퍼하고 낙담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으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슬퍼하거나 낙담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나자렛 예수님, 곧 주님께 호의를 두고 있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말도, 천사의 발현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제자들의 자기 확신일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기쁨과 사랑을 되찾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점이나 사도직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해서 희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성경(말씀의 식탁)과 빵 나눔(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을 뵙고 힘을 얻읍시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인내하여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은 결함 또는 부족함 자체가 아니라 결함을 인정하고 그 결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오만함에 있습니다.

인내하며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또 다른 방해물은 모범적이지 못한 주변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히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실한 이는 큰 일에도 충실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 하느님을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부부, 매일매일 성실히 수업 준비를 하는 학생은 모두 충실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을 지나가시면서 우리가 당신께 머물러 달라고 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를 외면해 주님

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지 못하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도록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어두워지기 전에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생기를 잃고 어두워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습니다. 삶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주십시오. 그것들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생기와 의미를 얻을 뿐 아니라 삶의 초자연적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눠 주시자 비로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길에서는 예

수님께서 친히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열정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말씀의 식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의 식탁에서 주님을 모시면서도, 우리 마음이 거룩한 열정으로 타오르지 않고 우리 눈이 주님을 알아뵙지 못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청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 진심을 담은 기도는 하늘을 울립니다.

7.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심 1

- (요한 20, 19-31)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스러운 몸에서도, 상처를 보존해 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상처들은 우리에 대한 그분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상처들을 기억하는 것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입니다.

…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죄의 용서와 평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누립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과거에 토마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랬기에, 주님을 뵙고 나서 모두 기뻐한 사도들은 토마스도 기뻐하리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주님을 뵈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던 동료들이지만, 토마스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증거를 원했습니다. 토마스는 주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마치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 삶에 의미를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

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다정한 얼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애정이 토마스를 굴복시킵니다. 애정은 더 쉽게 회심하게 해줍니다. 누군가를 바로잡아 주고 싶을 때, 애정을 가지고 좋은 말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토마스는 자신의 실수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매일 묵상이나 관상을 시작할 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면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도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정신으로, 첫 제자들의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8.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 (요한 21, 1-14)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본업인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놓은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알기 전이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같은 생업이나 학업을 계속합니다. 살다 보면 자기 본업에서 실패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섣부르게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새벽 호수에는 안개가 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체를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탄 배

에서 100m쯤 떨어진 물가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지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첫 번째 고기잡이 기적(루카 5, 4-7) 때와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이 아닌 분이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줍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하자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요한은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봅니다.

요한은 맑고 선명한 시각을 지닌 젊은이였기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을 헛것에 팔지 않고 맑고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예수님을 더 쉽게 알아뵐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뭍에서 백 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뭍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호숫물은 4월이었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담하게도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께 갑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가녀

린 사랑과 베드로의 믿음과 대담함을 좋아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좀 더 용감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차가워 보이는 사람은 좀 더 애정을 드러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뭍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밤을 새워 그물을 치느라고 제자들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은 세세한 작은 도움으로 표현됩니다.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의 일과 사도직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이 제 일터에도 오십시오."

9.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베드로

• (요한 21, 20-25)

(그때에)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자신의 특별한 역할과 요한이 주님께 각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누가 주님을 배반할 것인지 주님께 물어보

라고 요청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 대답을 얻어내리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누가 나보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하거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게 되면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요한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선택을 받았다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느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이 일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

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기록된 것으로도 우리 구원에 충분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과학적인 증거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일 따름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2에 2를 더하면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모르면, 틀린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만 받아들인다면 자유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저에게 복음으로 알려 주어 주님 예수님을 위대한 사랑을 내 영혼에 주십시오."

10.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심 2

• (마르 16, 14-18); 루카 24, 36b-48; 마르 16, 15-18; 마태 28, 16-20)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마르 16,14a).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루카 24,36b)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려나 걱정이 아니라, 평화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면 항상 평화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긴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곁에 머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

떤 것이, 또 어떤 일로 인해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루카 24, 37-48)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도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제자들의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당신의 몸을 보여 주시면서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분은 사도들이 당신의 상처를 보고 당신 몸을 만져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부족한 믿음에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물고기를 드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맞추신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영적 키에 맞추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는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제 안에서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은총의 덕을, 곧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보여 주심으로써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사도들을 안심하게 하시며 당신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인류를 위해 수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으시고 상처를 입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통과 상처는 또한 우리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그분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에 다가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을 성체성사 안에서 만나십시오. 감실 앞에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사도들처럼 우리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성체를 자주 모시지 못하고 감실에도 자주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저의 구체적인 환경에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 16, 15-19)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한 권한과 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교회는 그 처음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뿐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지체들, 교회의 구성원들은 연약한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느님에게서 기원을 두고 있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은 교회와 그 지체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교회는 그 공격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지속할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합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교황과 주교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직업생활과 일상생활에 더욱 충실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16-20)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서 하느님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지니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권한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곧 복음의 진리와 성사들의 은혜를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더 잘 알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조자이신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어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온전히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힘차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승천

- (마르 16, 20)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호세마리아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은 모든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로부터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

다."(성 호세마리아, 거룩한 묵주기도).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루카 24, 52)

예수님의 승천은 이렇게 기쁜 일이면서도 또한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기에 기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는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없기에 슬픈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간이시라면,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오르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늘의 영광에 오르신 것은 단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요한 14, 2-3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분은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느님 뜻에 맞게 더 개선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 희망은 현세를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희망을 간직하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각자에게 고유한 사도직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청하셨습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 주십사고 빕니다.”(요한 17, 15)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환경,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가족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환경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누룩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가정을 비롯해 사회제도와 공공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뜻에 더 맞갖게 개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은 인

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곳곳에 파견하시어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키워나가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따뜻한 마음과 봉사 정신입니다.

평신도는 성직자나 수도자와 똑같은 사도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나름대로 사도직 수행을 통해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일할 때나 휴식을 취할 때나 여가를 즐길 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말과 모범으로써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리교사는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복음을 전하며, 작가나 커뮤니케이션 매체 종사자는 출판물이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느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언제나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